

서구, 유촌지구 ‘상습침수’ 끝낸다…108억 확보



집중호우로 유촌지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긴 사진

/광주 서구청 제공

서구 최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국비 54억 확보
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구축…주민 오랜 숙원 해결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유촌지구의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을 열었다. 서구는 동남아파트 일원 유촌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8억여 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선정은 서구 최초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54억원(지방비 54억원)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침수 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촌지구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로 광주천 수위가 상승하면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침수가 반복돼 온 지역이

다. 서구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침수 예방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책을 설명했으며 올해는 배수펌프장 설치 전까지 저지대 빗물을 강제로 배출할 수 있도록 암송관로를 설치해 배수 여건을 보완했다.

특히 유촌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뒤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사업 검토, 현장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하며 국비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유촌지구가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구는 2027년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시작으로 2028년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때 신속하게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방재체계를 갖춰 유촌지구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마음 졸여야 했던 주민들에게 이번 선정이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유촌지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을 확충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남구청 레슬링 국가대표 박서영, 아시안게임 메달 정조준

자유형 53kg급 출전, 10월 3일 예선·결승전
金 구청장 “좋은 결과 기대” 박 선수 격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소속 레슬링 국가대표 박서영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17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박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레슬링 자유형 53kg급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현재 그는 진천 선수촌에서 머물면서 금메달을 향한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박 선수와 함께 아시안게임 무대를 밟는 박삼열 코치는 그의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유형 53kg급을 연달아

우승할 만큼 매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아시아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와 투지를 불태우고 있어 좋은 결과도 기대된다.

그는 오는 27일 출국해 현지에서 막바지 훈련을 하면서 금메달을 향한 최종 담금질에 나선다.

레슬링 여자 자유형 53kg급 경기는 오는 10월 3일 단 하루 동안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쉼 없이 펼쳐진다.

박서영 선수는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경기로 보답하고 싶다”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기량을 쌓으며 국가대표로 성장한 박 선수를 응원하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일 박 선수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품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아시안게임 출전을 격려하면서 선전을 당부했다.

한편, 남구는 지역 체육 발전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인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으며, 남구청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레슬링과 양궁 2종목

에 대한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박서영 선수는 그동안 꾸준한 훈련과 국내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려 왔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국가대표로서 입지를 다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특유의 빠른 움직임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앞세워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진천 선수촌에서 진행되는 훈련에서도 체력과 기술을 고루 보완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코칭스태프와 함께 상대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훈련도 이어가고 있다.

남구청 역시 박 선수의 대회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원활한 훈련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박서영 선수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제26회 곡성심청

어린이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곡성기 2026.10.8(목)~11(일) 곡성심진강기차마을

